



오근식  
전 건국대학교병원 홍보팀장

##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

벼꾸기와 두견새 그리고 땃꿩이가 노래하는  
외암마을의 골목길과 전채고택

아산 외암마을 전경







아산 외암마을 입구 물레방아간

민속 마을엔 옛사람들이 살던 집과 딱 눈높이까지만 올라와 있는 담장, 그리고 담장을 따라 이어진 골목이 잘 보존되어 있어 찾아오는 이들을 편안하게 맞아줍니다. 게다가 전통가옥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던 시절의 물건들이 곳곳에 보이니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이고 어른들에게 이미 지나간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민속 마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곳이 안동 하회마을, 순천 낙안읍성 그리고 충남 아산 외암리의 외암마을입니다.

외암마을은 누구라도 걸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높지 않은 설화산 서남쪽 별이 좋은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1500년 중반 조선 명종 때부터 예안 이 씨(禮安 李氏)가 들어와 살기 시작해 조선 말기에는 400호가 넘는 집성촌이 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100여년에 걸쳐 지속되었던 사람과 사물의 본성에 관한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 논쟁에 불을 지핀 숙종 때의 문신 외암(巍巖) 이간(李東, 1677~1727)이 태어난 마을이고, 추사 김정희의 부인 예안 이 씨의 고향마을입니다. 2000년 초 마을이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되며 과거의 마을 모습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외암마을엔 권세를 가진 이들이 살던 커다란 기와 집과 서민들의 작은 초가집이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두고 섞여 있습니다. 돌담엔 으름과 담장이 넝쿨이 자라고 골목길을 따라 마을 안쪽으로 실개천이 흐르며 마을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걷다가 조심스레 어느 초가집 마당에 들어서면 잘 가꾸어진 꽃밭에 도심에서는 자주 볼 수 없던 귀한 화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섞여 있습니

다. 그 모습을 눈에 담으며 사람 사는 동네에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비록 입장 요금을 내고 들어왔더라도 목소리는 작아져야 하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마을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좌측엔 주말 방문객들을 위한 공연 마당과 민속놀이 공간이 있어 언제라도 민속놀이 한두 가지쯤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리면 편히 구경할 수 있는 초가와 기와 전통가옥의 마당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과거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일종의 민속박물관입니다. 각종 생활

도구는 물론 근대의 농기구까지 곳곳에 전시되어 있어 관심이 있다면 한나절은 공들여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을 입구의 씩씩한 소나무 숲을 잠시 살피고 마을 안으로 들어서 보면 높지 않은 돌담과 골목길 저쪽이 궁금합니다. 다만 아쉽다면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대부분 대문이 닫혀 있어서 그 안마당엔 눈길조차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집집마다 꽃과 나무를 잘 가꾸면서 찾아오는 이들을 은근히 반기고 있습니다.

▼ 돌담 위 머루 덩굴



▼ 빨갭게 익은 앵두







아산 외암마을의 골목길

외암마을의 백미는 돌담과 골목길입니다. 돌담 따라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구부러진 골목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까치발을 하고 돌담 너머의 꽃과 나무를 살펴보게 됩니다. 어느 대갓집 담장 안마당에는 소나무, 밤나무, 살구나무, 뽕나무, 참죽나무 그리고 온갖 덩굴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어느 집은 대문조차 없어지고 넓은 마당엔 잡풀이 무성한데 옛 주인이 가꾸던 꽃과 나무는 홀로 자라며 여전히 어여쁨을 뽐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골목 어귀에서 주민들이 나와 앉아 전통 음료와 주전부리를 파는 모습이 보이고, 어느 마당 넓은 집엔 대여섯 명의 할머니들이 지난가를 추수한 콩을 삶아 띄운 청국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보다는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수십 년을 이웃해 살아오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터인데 여전히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지고 큰소리로 웃기도 하며, 때론 손사래를 치며 정색을 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입니다. 사람 사는 마을입니다.

아산 외암마을의 골목길





외암마을에서 꼭 보아야 할 집이 있습니다. 건재고택입니다. 이 민속 마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지만, 집주인은 더 이상 여기 살지 않고 공휴일에 구경꾼만 하루 세 번 드나들고 있습니다.

건재고택은 외암(巍巖) 이간(李柬)이 태어난 집입니다. 그 후 고종 때인 1869년 이간의 6대 후손인 건재(建齋) 이상익(李相翼 1848~1897) 지금의 모습으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후손이 대를 이어 이 집에 거주해왔으나 2009년 불미스러운 모양새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건재고택의 후손이 이 집과 토지를 담보로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해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결국 당시 모 저축은행의 회장이었던 인물이 건재고택을 일종의 별장처럼 사용하면서 로비와 접대의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후에 전 회장이 횡령, 배임, 부실 대출 등 각종 비리로 구속되고 건재고택이 경매 매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2019년 3월 아산시에서 건재고택을 낙찰받아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는 공휴일에만 하루 세 차례 사랑채까지만 방문객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하반기에는 상시 개방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문 바깥마당엔 오래된 은행나무가 이 집을 바라

건재고택의 대문 밖 풍경







▲아산 외암마을의 양반가옥 사랑채



▲아산 외암마을의 양반가옥 안채

▼건재고택 사랑채의 기암괴석



보고 있고 담장 안엔 다른 고목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대문을 들어서기 전부터 기존에 보았던 조선 시대의 양반집과는 다른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전통 양반집은 대문을 지나면 활짝 열린 마당이 있고 그 마당 끝엔 바깥주인이 거주하는 사랑채, 사랑채 뒤편 안주인이 거주하는 안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재고택 역시 기본 배치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랑채 앞의 넓은 마당엔 작은 화단 대신 온갖 나무와 기암괴석, 정자, 연못과 물길이가 빼곡해 여유 공간 한 뼘 없습니다. 나무는 한 그루 한그루가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고 곳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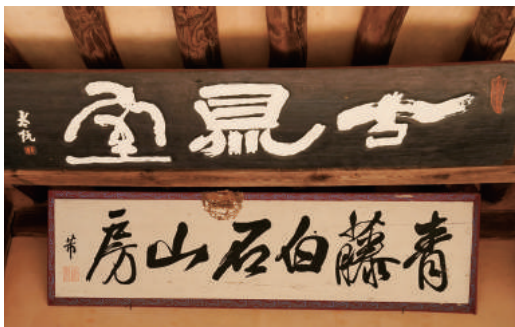


건재고택의 사랑채 앞 풍경

놓여 있는 괴석은 그 모양이 신기해 눈길을 떼기 어렵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 집 주인이 일본에 유학을 다녀와 일본의 정원 양식을 도입해 지금의 사랑채 앞 정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랑채에는 유서 깊은 양반 고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글씨의 편액과 주련이 과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추사의 글씨가 여럿 걸려 있는데, 이 집이 추사가 21세에 결혼한 부인 예안이 씨의 친정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추사가 썼다는 편액은 안채에도 세 개나 걸려 있고 주련 역시 빼곡한데 일부는 다른 곳의 추사 글씨를 모각한 것입니다.



▲사랑채에 걸린 추사 서체 편액 고정실(古鼎室)



▲안채에 걸린 추사 서체 편액 일로향각(一爐香閣)



사랑채 뒷마루에 앉아 나무와 돌을 바라보다 두꺼비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괴석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살아 있는 것처럼 정교하게 깎은 돌 두꺼비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 집 사랑채 주인의 별난 취미가 보였습니다.

이제 외암마을에 빈집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건재고택이 빈집이 되어 사람들에게 개방되더라도, 누구든 이곳에 오면 풀 한포기 나뭇가지 하나 상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보고 가야 하겠습니다. 삿갓새와 두견새가 울고 마을 안의 아름드리 뽕나무에 온갖 새가 찾아와 배부르게 먹으며, 마을 안을 흐르는 물과 웅덩이에서 맹꽁이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마을이 오래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산 외암마을 안 수령 600여년의 느티나무

